

2018년도 연간소식지 vol.7



# 국제푸른나무

Green Tree International



국제푸른나무는  
세계의 장애인들과 어린이들을 돕는 국제구호 NGO입니다  
Green Tree International is an international relief NGO  
that helps the world's disabled people and children.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국제푸른나무는 통일부인가 NGO 법인으로 등록된 국제 구호 단체입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해외 동포)와 힘을 합하여 세계 및 북녘 어린이와 장애인들의 필요를 채우고 국내 통일 인재들을 키움으로써 남북의 평화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 표지 사진 이야기

국제푸른나무가 급식 협력지원을 하고 있는 북녘 아동 시설의 두 아이

#### ■ 연락처

카카오톡 : gtreek11  
페이스북 : 국제푸른나무  
후원문의 : 02-3482-2000  
[www.greentreekorea.org](http://www.greentreekorea.org)  
[desk@greentreekorea.org](mailto:desk@greentreekorea.org)

#### ■ 국내후원계좌

국민은행 760737-04-007453  
(예금주: 사단법인 국제푸른나무)

#### ■ 해외후원계좌

KOOKMIN BANK, SEOUL, KOREA  
Account No. 760768-11-003910  
(GREENTREE INTERNATIONAL)  
SWIFT Code. CZNBRKSE  
[root@greentreekorea.org](mailto:root@greentreekorea.org)

발행처\_사단법인 국제푸른나무 | 주소\_(04422)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223-13  
농업기술진흥관 3층 303호 | 발행인\_곽수광 | 발행일\_2019년 4월 19일 (통권 7호)

# Contents

---

GREEN TREE INTERNATIONAL ANNUAL MAGAZINE VOL. 7

감사의 말	04	곽수광 이사장
특별기고 1	05	박종화 목사
소개합니다	06	신임 이사진
재무보고	08	
분기별 사업보고	10	
특별기고 2	12	이은영
뉴코리아비전사업	14	
통일인재양성사업	22	
국제개발협력사업	24	
후원홍보사업	32	
인터뷰	34	장슬비 후원자, KT사회공헌팀
국내지역본부소식	38	경산, 충남
특집기사	40	
해외사업본부소식	42	마다가스카르, 네팔
후원해주신 분들	44	
나눔참여 안내	46	

##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제푸른나무의 후원자님들께 새 봄을 맞이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글\_곽수광 이사장

여러분들의 사랑과 진심어린 격려와 후원에 힘입어 저희 국제푸른나무는 조금씩 조금씩 그러나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비전을 이루어 가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국제푸른나무와 싱가포르장애인협회 공동으로 주관하여 북녘의 조선 장애자보호연맹 김문철위원장을 비롯하여 총 7명의 리더들 그리고 여러 나라의 관계자들을 모시고 국제적인 포럼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간절함이 더해져 큰 감격과 감사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그 모든 이야기들을 마음껏 풀어 놓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감격스러웠던 것은 김문철 위원장이 국제푸른나무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IDF (국제 장애인 펀드)에 조선 장애자 보호연맹도 가입하여 함께 손잡고 북한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려운 나라들의 장애인을 돕는 일을 같이 해 나가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국제푸른나무의 비전이 'North Korea, South Korea, 그리고 Diaspora Korea가 하나되는 New Korea를 만들어 세계 열방을 축복하는 민족이 되자'라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그 가능성을 보게 된 것 같아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이제 새 봄을 맞이하여 저희 국제푸른나무는 또

다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는 인도주의적인 정신으로 북한을 돕기 원하는 세계 여러나라의 기관들과 힘을 합하여 보다 지속가능하고 실제적인 사업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파스티르 연구소 그리고 영국의 런던 지역 대학 연합체와 첫 협력사업의 발걸음을 떼는 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북한뿐만 아니라 푸른나무 아프리카리더십과 함께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도 더 활발하게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후원자님들의 사랑과 후원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후원해 주신 사랑에 힘입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푸른나무가 조금 더 튼튼한 나무로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고 수많은 새들이 날아와 노래 부를 수 있는 거목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이 역사적인 시점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에 저희들의 오병이어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감사와 사랑을 드리며

국제푸른나무 이사장 곽수광 올림



국제푸른나무의 새로운 고문, 박종화 목사가 제언하는,

## 평화를 심어 통일의 나라를!

2018년의 시작은 아주 좋았다. 통일의 기운이 솟아났다. 세계인의 평화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이 엄청난 한반도 상황의 변화를 몰고 왔다.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싹튼 평화의 분위기는 4월과 5월의 두 차례에 걸친 남북 간의 정상회담으로, 6월에는 역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고, 거대한 국제정치의 게임의 회오리를 몰고 왔다. 남북은 물론 북미 간에는 아주 오래되고 깊은 상호간의 ‘불신의 벽’을 ‘신뢰의 창’으로 바꾸는 작업과 동시에 현안 해결에 진솔하게 임해야 하는 과제를 앞에 놓고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소득은 있다. 평화적 방식을 통한 해법만이 남아있게 된 상황반전이 나름의 커다란 수확일 수 있겠다. 통일의 목표가 평화이면서도, 동시에 통일을 향한 과정도 평화임을 확인한 점이 다행스러운 상황발전이다. 오늘의 전쟁에는 일방의 승리가 없고 쌍방의 패배만 있다. ‘너 살고 나 살자’라는 평화적 공존 내지는 상생의 협력 밖에 다른 길이 없다. 이런 평화의 시작을 상징적으로 평창 올림픽이 제시해 주었다고 확신한다. 하늘이 특별히 베푸는 ‘은혜의 때’를 감사와 믿음으로 받고 이 땅에 실현하는 일에 지혜와 용기를 모아야 한다. 통일 이전에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계속하여 평화적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도록 기도하며 노력해야 한다.

남과 북 및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 차원이 크게 군사안보와 경제개발을 맡는다면, 민간 차원에서는 인도주의적 협력과 사회문화 차원의 교류 협력을 맡는다. 정부차원의 협상과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은 항상 두 개의 트랙으로 상호 보완하면서 전개됨이 바람직하다. 통일

이전에도 또 통일 이후까지도 북녘의 동포를 상대로 교류와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일용할 양식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먹고 마실 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농사와 경작의 기술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 돕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돕자는 말이다. 특히 영양실조의 유아들을 우선적으로 도와야 한다. 모자보건에 투자와 도움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장애인들에게 먼저 자비와 사랑의 손길을 뻗쳐야 한다. 서로 간의 교류협력을 통해 삶속에서의 신뢰를 심고 키워야 한다.

시작이 절반이라고 한다. 그리고 끝이 좋아야 만사가 좋다고 한다. 우리는 평화로 시작했다. 평화로 끝이 나야 통일 한반도가 산다. 올림픽 축제가 남북해빙의 좋은 시작의 길잡이가 되었으니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나아가 동북아 평화가 아름답게 결실 맺기를 바란다. 통일은 신뢰와 협력의 반석위에 세워지는 집이다. 이렇게 튼튼한 집에서 남과 북의 백성들은 자유, 풍요, 행복, 신뢰, 희망, 사랑, 자비의 삶을 누릴 것이다. 이런 삶을 우리는 ‘평화’라 이름 한다. 그래서 진정한 통일은 곧 평화다. 평화는 통일의 알맹이이고 목표이다. 평화를 누릴 통일의 집을 함께 짓자. 통일의 집을 채울 평화를 함께 만들자.

### ■ 박종화 목사



現 국민문화재단 이사장  
前 세계교회협의회 중앙위원  
한국기독교장로회 총무  
경동교회 담임목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  
대한기독교서회 이사장

국제푸른나무와 함께 꿈 꾸며 움직이기 위해  
신임 이사 세 분이 함께하시게 되었습니다  
후원자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 국제푸른나무와 함께 통일을 꿈꾸다

## 신임 이사 소개



### 한미미 이사

세계YWCA 부회장 | 한국YWCA 실행위원/임원  
NCCK 한국교회 협의회 국제협력부 부위원장  
외교통상부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 자문위원  
서울시 장학재단 이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사 등



### 이의주 이사

미국에서 전산 및 기업 행정화 전문가로 27년 활동  
· IBM - 슈퍼 컴퓨터 전문가 · Accenture - 미-동북부 컨설팅 실장  
· GE - 전산화 및 행정 체계의 비즈니스-설계사  
現 한국의 중견기업들을 상대로 경영컨설팅 및 위탁경영  
前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사 등



### 최일도 이사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이사장  
다일공동체 대표  
한동대학교 겸임교수  
2012년 국민포장 수상 (대한민국정부)  
2009년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수상(한국 언론인 연합회)

**푸른나무:** 모두들 바쁘신 중에도 국제푸른나무와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이사직을 흔쾌히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맡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한미미:** 저는 에베소서 2:14-16, 19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 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의주:** 네, 저는 27년 동안 쌓아온 국제적 경험을 활용하여 한반도와 모국의 미래에 참여하고자 미국 생활을 뒤로 하고 아시아로 이주했습니다. 새로운 시대 발전에 앞서 민족이 협력할 필요성을 느끼고 수년 전부터 북녘에 관심이 있었기에 국제푸른나무의 부름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최일도:** 저의 아버님과 어머니 고향은 황해도입니다. 저는 실향민의 아들로 항상 북녘 땅을 마음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 다일공동체도 남과 북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밥 피스메이커 운동을 국제푸른나무와 함께 5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북녘에도 평화를 심고 나무를 심고 꿈과 씨앗을 함께 뿌리는 귀한 사명이라 생각하며 이사직을 수락했습니다.

**푸른나무:** 국제푸른나무의 핵심비전인 ‘통일’을 음식에 비유하자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한미미:** 통일은 ‘누룽지’입니다. 밥솥에 그을려 탄 밥이 구수한 누룽지를 만들듯이, 70년 동안 한반도의 분단이 우리의 마음을 속타게 그을렸지만 언젠가 누룽지같이 구수한 통일의 기쁨이 오리라 믿습니다!

**이의주:** 통일은 ‘김치’입니다. 제가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미국에서 성장했다고 해도, 북녘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접했던 여러가지 음식 중 가장 인상에 남아 있는 것은 백김치입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수 많은 지역의 김치 맛이 제각기 다양하겠으나 모두 우리 김치인 것처럼, 우리 민족도 분단이 되어 있고 아무리 많

은 요인들이 이 민족을 그동안 갈라놓았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의 민족이자 필연적으로 함께 해야 할 가족입니다.

**최일도:** 통일은 알맞게 찌진 찜만두라고 생각합니다. 명절 때마다 어머니가 빚어주시던 이복식 만두가 떠오르는데요, 서로 다른 다양한 재료가 순백의 하얀 외피에 싸여 서로 하나의 만두를 완성해가는 모습 속에 통일의 지혜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만두피로 싸여진 다양한 재료들이 자신의 맛을 잃지 않지만 찜통 안에서 푸욱 삶아지고 찌지면서 독특한 맛으로 어우러져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사랑의 외피로 감싸여진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이 그려집니다.

**푸른나무:** 이런 다양한 음식으로 표현되니 통일의 그림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푸른나무의 후원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미미:**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오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같이 평화와 통일의 길에 함께 동참해주셔서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기도와 지원이 절망에서 희망을, 상처에서 치유를, 분단에서 평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의주:** 저도 후원자 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오랫동안 통일을 염원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일에는 제가 감히 언급 할 수 없는 복잡다단한 요소들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 한사람 한사람이 지금처럼 나눔과 관심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통일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관심을 넘어 ‘참여’ 해주시는 후원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일도:** 국제푸른나무를 돕고 계신 후원자님들, 진실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통일과 평화를 위해 심는 작은 정성은 아마도 산 위에 심고 있는 작은 묘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비록 미약한 정성이라 생각될 수 있어도 이런 마음들이 모이고 모여 자라면 푸른 숲이 되고 자라난 숲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어질 것입니다. 작은 정성 모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평화의 길 화해의 길을 남들과 함께 힘차게 걸을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 위 내용은 인터뷰형식으로 재구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8 재무보고

2018년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푸른나무는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후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검증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및 국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결산 재무재표와 기부금사용명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입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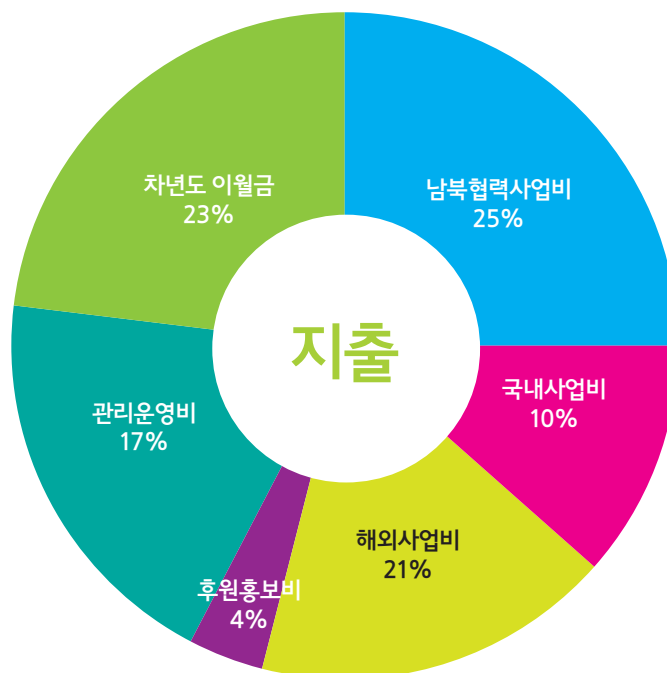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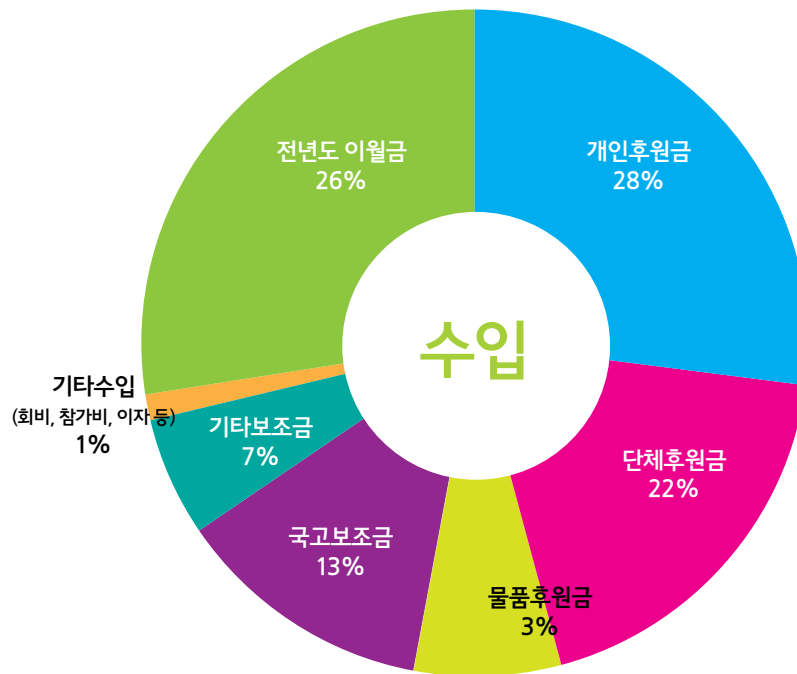
(단위: 원)

과목	금액	비율
개인후원금	282,070,487	27.9%
단체후원금	220,744,528	21.8%
물품후원금	34,461,150	3.4%
국고보조금	132,511,748	13.1%
기타보조금	66,605,111	6.6%
기타수입(회비, 참가비, 이자 등)	9,119,054	0.9%
전년도 이월금	266,057,497	26.3%
합계	1,011,569,575	100%

## 지출내역

(단위: 원)

과목	금액	비율
남북협력사업비	250,636,763	24.8%
국내사업비	104,478,926	10.3%
해외사업비	212,500,391	21.0%
후원홍보비	36,554,361	3.6%
관리운영비	173,271,651	17.1%
기타지출(외환차손 등)	179,472	0.02%
전년도 이월금	266,057,497	26.3%
차년도 이월금	233,948,011	23.1%
합계	1,011,569,575	100%





# 분기별사업보고

## 2018. 1분기 (1~3월)

- 1월 북녘 어린이 내복 2000벌 전달
- 1/25 정기총회 및 이사회
- 1/25 조혜련, 송솔나무 홍보대사 위촉식
- 1/25 Pathfinder 업무협약식
- 2월 조선장애자보호연맹에 비닐박막 10톤 전달
- 3/14 평창 동계 패럴림픽 북측선수 응원단 진행
- 3/20 드림키퍼 업무협약식



## 2018년 1차 방북 (3/10-14)

- 북녘 장애인 바리스타 교육 사업 지원협력
- 조선장애어린이 회복원 모니터링



## 2018. 2분기 (4~6월)

- 4/3 평양척추재활병원 후원의 밤
- 4/20 카카오같이가치 북녘 보육원 누룽지 전달을 위한 모금 완료
- 6/15 숙명여대 북녘 어린이 돕기 후원금 모금



## 2018년 2차 방북 (5/30~6/6)

- 시설 모니터링
- 산림총국 산림녹화사업 의향서 체결
- 국제아동절 맞이 북녘 장애인, 비장애인이 통합 놀이행사 지원협력(6/1)



## 2018. 3분기 (7~9월)

- 7월 전OO, 송OO 복讎 장애인 스포츠 선수 치료비 지원협력
- 7/4 카카오같이가치 복讎 고아원 모기장 전달을 위한 모금 완료
- 7/30 평화코딩교사 양성 아카데미 (7/30~8/8)
- 8월 나선 지역 탁아소·유치원에 누룽지 전달
- 8/13 청소년 평화코딩 아카데미 (8/13~8/19)
- 9/21 카카오같이가치 장애인 보장구 전달을 위한 모금 완료
- 9/12 국제푸른나무 캐릭터 공모전 (9/12~10/31)



## 2018년 3차 방북 (8/4~8)

- 시설 모니터링
- 장애인을 위한 국제협력포럼(ICFEPD) 의향서 체결
- 산림총국 나무심기사업 지원협력(양묘장)



## 2018. 4분기 (10~12월)

- 10/4 복讎 선봉지역 130여명 아동 급식사업 파트너 위촉 및 지원협력
- 10/31 복讎 두만강지역 100여명 아동 급식사업 파트너 위촉 및 지원협력
- 11월 북민협 통해 밀가루 2,000만원 어치 전달 (황해도, 함경도 지역)
- 11/1 KT와 '세계 장애인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식' 진행 및 MOU 체결
- 11/18 송정미 후원콘서트 - The Life 지구촌교회 광고채플
- 12/5 제 1회 장애인을 위한 국제협력포럼(ICFEPD) 개최 (12/5~6)







특별기고

①

# TERRA INCOGNITO

허락되지 않은 땅

## 그리고 한 알의 밀알

글\_이은영

1866년 평양에서 로버트 토마스(Robert Jermain Thomas, 1840~1866) 목사님은 한국 개신교의 첫 순교자가 된다. 그를 파송한 영국 웨일즈 주의 작은 교회를 가게 되었다.

아버지가 하노버 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하면서 토마스 선교사는 8살부터 이곳에서 유년기를 보냈다고 한다. 교회 앞 묘지에는 순교자 토

마스 목사님의 부모님과 어릴 때 사망한 누이가 묻혀있었다.

중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은 카톨릭 신자들에 대한 박해가 심한 조선을 ‘허락되지 않은 땅’(terra incognita)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토마스 목사님은 조선에 오기 위해 넉 달을 걸려 영국에서부터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중국에

왔지만 감염병으로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잃었다. 그럼에도 기꺼이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 호에 통역관으로 자원해 올라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에 도착했다. 그러나 조선 군과의 대치로 인해 그는 배에서 내려 마지막까지 챙겨간 번역된 성경을 뿌리고 결국 대동강 백사장에서 순교했다.

우리를 이곳에 안내한 이 교회 장로님이자 의사인 닥터 프라이스는 교회 바로 옆 1300년 된 마굿간을 사비를 들여 고쳐가며 교회를 돌보고, 수도 없이 평양을 오가며 북한의 장애인과 의료인들을 양성하는 일에 헌신하고 계시다.

닥터 프라이스가 말했다. “토마스는 죽으러 가지 않았어요. 죽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세요. 허무하고 안타까운 죽음 같지만 그가 죽어가며 뿌린 번역된 성경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어요. 지금의 한국을 보세요. 여러분을 보세요. 이렇게 예수를 믿고 여기 웨일즈까지 왔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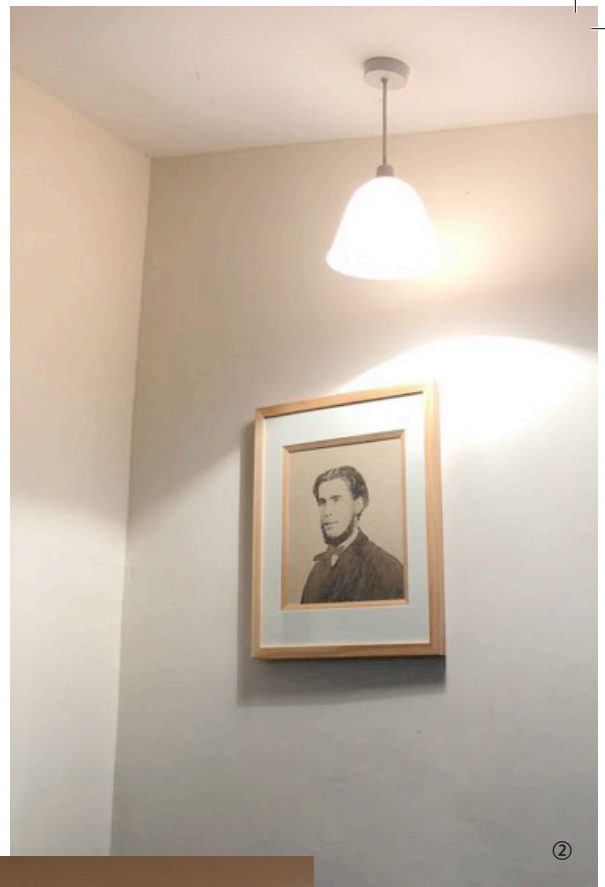
주책없이 많이 울었다.

토마스 목사님의 성경을 가져다가 벽지로 바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로 인해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토마스 목사님이 피를 흘린 대동강 물을 마신 사람마다 모두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부흥이 평양에서 시작되어 개신교가 전파된 지 100여 년 만에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이 생겨나게 되었다. 나의 외할아버지께서도 황해도에서 영국 선교사(성공회)에게 유아세례를 받으셨다고 들었다. 그 복음은 결국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이어졌고 그렇게 복음이 우리 집에 뿌리를 내렸다.

허락되지 않는 땅 조선을 품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기꺼이 떠났던 스물 셋의 토마스 목사님과 그를 파송한 그의 아버지와 가족들, 그리고 그 교회 사람들의 마음이 이 공간에서 느껴졌다.

지금 우리는 또 다시 허락되지 않는 땅 목전에 와 있다. 오랫동안 대북사업을 하셨던 한 원로 목사님께서서는 ‘북한을 돕는 일은 이름도 드러내지 못하고 박수도 받지 못하는 일이라 지치고 힘들어서 오래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하셨다. 날이 곁을 떠나 말을 때나 늘 그렇게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국제푸른나무가 되었으면 한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 아닐는지 싶으니 말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 1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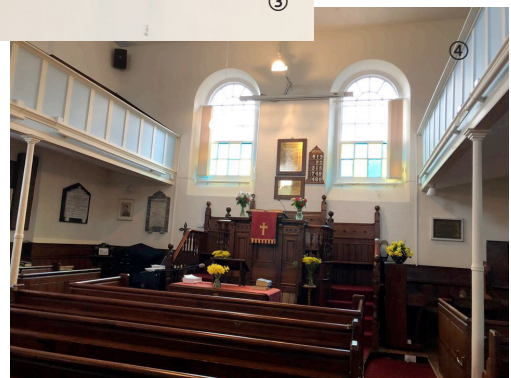


②



③

- 1 영국 웨일즈주의 하노버교회
- 2 한국 개신교의 첫 번째 순교자 토마스 목사
- 3 로버트 토마스 목사의 이름이 새겨진 한반도 모양의 기념물
- 4 하노버교회 내부





뉴코리아비전사업



## 뉴코리아 비전사업

■ 국제푸른나무가 협력지원하는 북녘 아동시설의 어린이들





## 북녘 어린이 내복 2000벌 전달

우리보다 더 추운 곳에서 긴 겨울을 견뎌야 할 북녘 어린이들을 위해 겨울 내복 선물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내복 한 벌당 1만원을 후원받아 2018년 1월 총 2000벌을 북녘 어린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아이들이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신 후원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비닐박막 10톤 전달

2월에 조선장애자보호연맹에 농업용 비닐 10톤을 전달했습니다. 농작물이 추위를 피해 잘 자라나서 북녘 장애인들의 먹거리 상황이 더욱 좋아지기를 희망합니다.



## 2018년 1차 방북 협력지원

3월 10~14일에 방북하여, 북녘 장애인 바리스타 교육 사업을 협력지원하고 조선장애어린이회복원을 방문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 2018년 2차 방북 협력지원

5월 30일부터 6월 6일까지 방북하여, 산림총국 산림녹화사업 의향서를 체결하고 협력시설을 모니터링했습니다. 또한 북녘의 어린이날인 6월 1일 국제아동절을 맞이하여 국제푸른나무와 북녘의 조선장애어린이회복원, 동문2막아소가 합동하여 최초로 장애인·비장애인 어린이 통합 놀이행사를 진행했습니다.





## 나선 지역 아동 시설에 누룽지 전달

후원자 분들의 많은 도움과 관심으로  
8월 북녘 아이들에게 누룽지가  
전달되었습니다. 든든한 한 끼를 선물해  
주고자 하는 사랑이 아이들의 마음에도  
같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카카오같이가치를 통해 모인 소중한  
모금액은 500인분의 누룽지를 구입하고  
운송하는 데 쓰였으며, 북한 나선시  
선봉지구에 있는 총 51개의 아동 시설과  
유치원에 전달되었습니다.



## 2018년 3차 방북 협력지원

8월 4-8일 방북하여, 협력시설 모니터링,  
장애인을 위한 국제협력포럼(ICFEPD)  
의향서 체결, 산림총국 나무심기사업  
협력지원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 산림총국 나무심기사업  
(양묘장)

## 북녘 아동 급식사업 파트너 위촉 및 협력지원

뉴코리아비전사업의 일환으로, 선봉지역의  
130여명 아동 대상 · 두만강지역의  
100여명 아동 대상 급식사업 파트너를  
각각 위촉하고 협력지원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선봉과 두만강 지역의 아동시설  
원아들에게 하루 두 끼 분량의 콩우유  
(두유)와 빵 등의 급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더욱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두만강지역의 아동대상  
급식을 위한 빵 제작



■ 콩우유를 생산하는 모습





# 국제아동절행사 합동진행

2018년 6월 1일, 북녘의 어린이날인 국제아동절을 맞이하여 국제푸른나무와 북녘의 조선장애어린이회복원, 동문2탁아소가 합동하여 최초로 장애인·비장애인 어린이 통합 놀이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니다. 조선장애어린이회복원의 지체장애 어린이 45명과 동문2탁아소 어린이들, 그 외 비장애인 어린이들 총 100여 명이 각종 체육, 예술 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우정을 쌓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장애인 어린이들의 자존감과 성취감이 더욱 높아졌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장애를 가진 어린이와 비장애인 어린이들이 함께 어울려 건강하고 밝게 자라나기를 기대합니다. 아이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주신 많은 후원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선봉지역을 휩쓸었을  
때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  
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많  
은 어린이들이 교육받아야  
하는 탁아소와 학교가 하루  
아침에 사라져 버렸다. 국제  
푸른나무가 작년 10월부터  
지원을 하기 시작한 ○○탁  
아소도 그 중에 한 곳이다. 이  
곳의 어린이들은 돌이 채 되  
지 않은 아기들부터 5세까지  
로, 매일 아침 7시부터 부모  
님의 일이 끝나는 늦은 저녁  
까지 하루 종일 맡겨진다. 이  
렇게 생활하는 140명의 원아  
에게 점심과 저녁을 제공하  
는 일을 벌써 6개월 넘게 해  
오고 있다. 탁아소를 방문할

때마다, 아이들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 세상에 어떤 일  
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와 아무 상관없이 항상 초롱초롱한  
눈빛과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안기곤 한다. 그  
모습은 우리 마음에 따스함과 감동을 준다. 좀 큰 아이들이 장난끼가  
넘치는 목소리로 “막대기사탕(Lolly Pop) 가져왔습니까? 그거  
먹고픈데”라고 하도 졸라서 오랜만에 쫓더니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작은 사탕을 통해 달콤  
한 사랑을 기억하기를 간절  
히 소원한다. 아  
이들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 줄

## 북녘현장이야기



에게 행복한 기억으로 남는 이 사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이 아이들은 시설에 있는 교사들의 극진한 보살핌과 우리들의 사랑 나눔이 더해져 얼굴이 밝고 건강한 빛이 넘친다. 아이들은 이러한 사랑과 관심 속에서 잘 자라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국제푸른나무를 통해 지금과 같은 사랑과 관심이 북녘의 다음 세대에 심겨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글\_대북사업활동가



“ 나의 소망은 이 아이들에게  
작은 정성을 통해  
달콤한 사랑이 기억되는 것이다 ”



통일인재  
양성사업

코딩으로 드론을 조정하고 있는  
청소년평화코딩아카데미 참가자





## DMZ 평화코딩 교사 양성 아카데미

행정안전부의 지원으로 7월 30일~8월 8일 DMZ에서 19명의 코딩 교사 및 예비교사들이 모여 창의적인 평화 코딩 교수법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교사들은 퍼실리테이터로서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시대에 아이들이 평화와 통일에 대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코딩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후 9월 28일~29일, 지난 DMZ에서 진행되었던 평화코딩교사 양성 아카데미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강원도 정선에서 평화코딩교사 양성 아카데미 PM(프로젝트 매니저) 과정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아카데미에서 배웠던 평화통일 지식과 코딩 기술을 활용하여, 평화코딩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 청소년 평화코딩 아카데미 PeaceMakers JEJU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의 지원으로 8월 13~19일 제주도에서 17명의 청소년이 모여 한반도의 평화를 주제로 코딩을 배웠습니다. 스크래

치를 활용한 결과물을 직접 제작해보고, 앱 인벤터 수업을 통해 앱을 직접 만들어 각자의 핸드폰으로 넣어서 사용해 보았습니다. IT업계 강사의 수업을 통해 앱의 실제에 대해 배우고, 다음카카오 본사를 방문하여 현지 다음카카오 직원에게 AI와 앞으로의 IT산업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UN 이주기구와 함께하는 평화오픈세미나, 드론 수업, 생각정리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준비하고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6일 째 되는 날 해커톤을 시작하여 총 4개의 조가 각자 새벽까지 최종 콘텐츠를 기획, 제작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각 조가 제작한 영상, 게임,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콘텐츠 결과물들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10월 20~21일 스크래치를 활용한 해커톤 평화코딩 송파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평화코딩아카데미에 참여했던 청소년들과 DMZ 평화코딩에 참여했던 교사들이 1대1로 팀을 이루어, 무박 2일동안 스크래치를 활용하여 평화코딩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일련의 평화코딩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캠프에 참여한 모든 교사 분들과 청소년 친구들이 IT를 활용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더욱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구현해나가는 미래의 주역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제개발  
협력사업

ICFEPD 개회사를 발표하는  
국제푸른나무 박수광 이사장





## 제 1회 장애인을 위한 국제협력포럼(ICFEPD)을 개최하다!

글\_편집부

2018년 12월 5-6일, 싱가포르에서 제 1회 장애인을 위한 국제협력포럼(International Co-operation Forum for Enabling People with Disabilities, ICFEPD)이 개최되었습니다. 장애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남북 및 국제의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향을 논의하고자 노르웨이, 스위스 등 5개국의 장애인 복지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와 KT 등 기업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으며, 특별히 북측 대표단으로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이하 조장련)에서 7명이 참석했습니다. 약 70여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은 싱가포르 국제푸른나무가 발족한 ICFEPD 조직위원회, 싱가포르 장애인협회(DPA Singapore),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KFPD)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통일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KT,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제푸른나무의 곽수광 이사장의 개회사로 포럼이 시작되었습니다. 곽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장애인을 돕는 것은 보편적인 가치'이며 '정부와 시민 사회 그리고 국제 기관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북측 조장련의 김문철 위원장이 환영사를 발표하며 북측의 장애인 보호 사업과 관련 법령,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한 것 등에 대해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해놓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라고 하며 이번 회의가 장애인 보호 사업 분야에서 남과 북 그리고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장애인 차별을 없애고 전세계의 모든 장애인을 위한 참다운 인도주의적인 환경이 마련된 보다 아름다운 세계를 이룩해 가는데 큰 기여를 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조선장애어린이회복원 송향춘 원장은 ‘장애회복에 대하여(Rehabilitation of Disability)’라는 주제로 북한 내 장애 어린이 기관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지난 6월 1일 국제아동절을 맞아 국제푸른 나무와 협력하여 개최했던 장애 어린이 비장애 어린이 통합 놀이 행사 등을 예로 들어 시범적인 포괄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을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 사회공헌 총괄 국장 다이애나 베이틀러 박사(Dr. Diana Beitler)는 ‘더 포용적인 세계 창조(Creating a more inclusive world)’라는 제목으로, 자폐스펙트럼 장애인 채용을 통해 프로그램 코딩 우수자를 다수 채용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첨단기술 개발에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기술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등 장애인과 관련된 기업의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강의 도중에는 시각장애인이 상대를 인식하는 것을 돕는 앱을 직접 시연해 보기도 했습니다.

KT 사회공헌팀 김수연 팀장은 ‘KT의 장애인을 위한 지속가능성(KT’s Sustainability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이라는 제목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소리찾기’ 프로젝트와 IT서포터즈 활동 등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맞춤형 스마트팜 기술과 시·청각장애인 학생들의 직업 훈련을 위한 보조기구 연구개발 현황 등을 다루었습니다.

오후에는 북측의 조선통인협회 오준걸 회장이 ‘조선통인협회와 그 활동(Deaf Association of Korea and its activities)’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습니다. 오 회장이 수화로 열정적인 강의를 이어갈 때 포럼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집중했습니다. 수화가 끝나면 조선손말통역원협회





신지향 손말통역원이 우리말로 통역하는 아름다운 협력을 통해 뜻깊은 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는 남북의 수화가 일정 부분 다르지만 하루 빨리 교류가 이어져 남북 수화 및 점자를 연구하고 통합·발전시키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오후 마지막 순서인 패널토론에서는 싱가포르 장애인협회 사무총장 Marissa 박사가 좌장을 맡아 ‘장애인을 위한 더 포용적인 사회 만들기(Making a more inclusive socie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라는 주제로 한국의 장애인 고용 정책과 재활의학 현황, 스위스와 싱가포르의 장애인 복지 정책 등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포럼 2일 차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추무진 이사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ICFEPD 조직위원회 자문위원이자 신한대학교 지식복지대학원 이철수 교수가 ‘장애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의 개발과 교류 계획(Development and Exchange Plan of Welfare Service for the Disabled)’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을 했습니다. 이어 신지향 조선손말통역원협회 손말통역원이 조선맹인협회 회장을 대신해 ‘조선맹인협회와 그 활동(Blind Association of Korea and its activities)’이라는 제목으로 협회에서 시행하는 예술 및 체육활동, 직업 교육 활동, 국제 교류 활동 내용을 공유했으며, 점자 프로그램 개발과 홈페이지 개설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장애인 연금과 기업의 장애인을 위한 사회공헌을 주제로 논의했습니다.

패널 토론 후에는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복지 시설인 Kampung Admiralty에 방문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배려한 여러 건축 요소에 대해 건축가들의 설명을 직접 들으며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IT기반의 첨단시스템이 장애인 복지에 기여하는 바와 사회 복지 서비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포럼에 참여한 북측 인사 7명은 발표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 질의에 활발히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등 남북 협력과 국제사회





로고설명: 이번 포럼을 주최한 기관들

협력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에 북측 대표 조장런 김문철 위원장과 국제푸른나무 광수광 이사장 및 싱가포르장애인협회 Marissa 사무총장이 공감하여 남북·국제 협력 사업을 위해 함께 구체적인 노력을 해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해놓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라는 김문철 위원장의 인사말처럼, 앞으로도 국제푸른나무는 ICFEPD 포럼을 통하여 남북 및 세계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 증진에 계속하여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포럼을 공동 주최하며

글\_Dr. Marissa

2018년 12월 5-6일, 싱가포르 장애인협회 (DPA Singapore)는 싱가포르 국제푸른나무의 초대로 제1회 장애인을 위한 국제협력포럼 (ICFEPD)을 공동 개최했습니다. 싱가포르 장애인협회는 이전에 한국과 북한 기관과 협력해 본 적이 없었지만, 우리 각자의 국가에서도 시행해볼 수 있는 것들을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싱가포르 장애인협회의 인클루전 앰버서더(Inclusion Ambassadors)가 싱가포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교육의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인클루전 앰버서더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발표 경험을 통해 훈련해 온 장애인협회의 회원들입니다. Mrs. Margaret See Revalle, Mr. Iskandar Shah 그리





싱가포르 장애인협회의 인클루전 앰버서더

고 Ms. Lily Goh는 인클루전 앰버서더가 되기까지의 그들의 여정과, 이것이 장애 리더십에 대한 그들의 관점을 어떻게 형성했는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저는 한국과 북한의 대표단이 인클루전 앰버서더로 인해 얼마나 영감을 받았는지를 보고 고무되었습니다. 또한 인클루전 앰버서더 멤버들은 이 포럼에서 한국과 북한 대표단을 만나 각 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배우게 되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를 제게 나눠주었습니다. 자국 사람들에게 자국의 수어를 소개하고 가르치려는 북측의 노력은 싱가포르 장애인협회의 인클루전 앰버서더인 Ms. Lily Goh에게 싱가포르어로 수어를 공식적으로 인식하도록 홍보하는 더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또한 남북 양국의 장애인 기관들이 각 사회의 구성원들과 협력하는 모습에 있어서는 남한과 북한이 차이점보다도 공통점을 더욱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도 벤치마킹 하고 싶은 흥미로운 아이디어들을 넘어서서, 더욱이 개인적 차원에서 제가 ICFEPD로부터 얻은 것은, 서로에게 배우는 것에 열정적이고 좋은 공동체 속으로 싱가포르 장애인협회가 환영 받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ICFEPD에서의 우정과 협력의 정신은 진실된 것이었습니다. 국제푸른나무와 함께 ICFEPD에서 일한 것은 동일한 마음을 가진 비영리 기관과 연결될 수 있는 훌륭한 기회였으며, 싱가포르 장애인협회는 이것이 장기적인 파트너십의 시작이기를 희망합니다. 포용을 향한 여정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배워나가는 과정이며 우리는 오직 새로운 이들에게 뻗어나가 서로를 지지함으로써 이를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Marissa Lee Medjeral Mills 박사  
싱가포르 장애인협회  
(DPA Singapore)  
사무총장



## 방글라데시 취약계층 및 로HING야 난민 지원

### 방글라데시 취약계층에게 의료서비스 지원

2018년 6월, 국제기구 icddr,b와 협력하여 방글라데시 Dhaka에 위치한 icddr,b 병원을 통해 의료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했습니다. icddr,b 병원은 형편이 어려운 200,00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콜레라·로타 바이러스·시겔라와 같은 설사성 질환, 폐렴 등 호흡기 감염병 및 극심한 영양실조를 무료로 치료하며, 모유수유 부서를 포함하여 짧게 머

무를 수 있는 병동과 엄마와 자녀를 함께 장기간 수용할 수 있는 병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로HING야 난민 캠프 지원

현재 방글라데시에는 700,000명 (UNHCR 추산)의 로HING야 피난민들이 있습니다. 난민 대부분은 수질, 위생 수준이 열악한 대피처에서 임시방편으로 거주하면서 건강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





황은 방글라데시 지역사회의 경제와 보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국제푸른나무는 icddr,b와 협력하여 기존 1차 콜레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과 새로 이주하여 온 로힝야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98만 5천 도스의 경구용 콜레라 백신 접종 및 1-5세의 영유아들의 20만 도스의 경구용 소아마비 예방백신 접종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설사성 및 일반 질병 관리, 응급 영양과 건강 케어 등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도왔습니다.

국제푸른나무는 기초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글라데시 취약계층과 로힝야 난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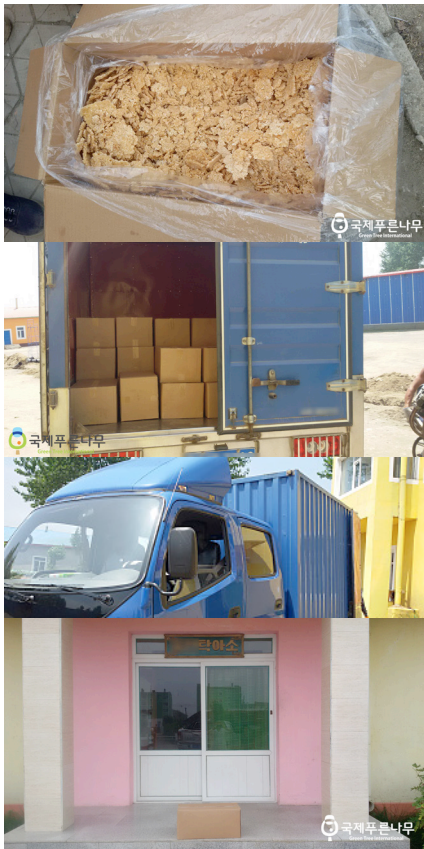


# 후원홍보사업

## 카카오같이가치 모금진행

- 북한 어린이들에게 든든한 누룽지 한 끼를 선물해주세요. 3/26-4/20

강냉이나 빵 등 옥수수나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주로 섭취하는 북한 어린이들에게 누룽지를 전달하기 위해 총 2,008,000원이 모아졌습니다. 8월, 누룽지는 러시아를 지나 북녘 두만강 지역에 있는 총 51개 아동시설에 전달되었으며 한 아동시설 당 약 10kg의 누룽지를 전했습니다.



- 말라리아로부터 북한 보육원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6/1-7/4

냉방시설이 부족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무더운 여름 밤을 지새는 북한 아동시설 원아들은 모기로 인한 말라리아 감염 위험에 쉽게 노출됩니다. 모기장을 통해 말라리아 모기와 일본뇌염 모기 등 해충들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총 2,000,000원이 모아졌으며, 구입한 모기장은 2019년 4월 경 전달될 예정입니다.



- 북한에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6/21-9/21

북녘 장애인들에게 엘보우 지팡이 등 보장구 전달을 위해 총 1,183,000원이 모아졌습니다. 북측 사정으로 인해 알루미늄 지팡이 반입이 어렵게 되어, 시력 교정용 안경을 구입했으며 2019년 4월 경 전달될 예정입니다.





## 홍보대사 및 홍보아티스트 위촉

1월 25일 방송인 조혜련과 드라마 ‘이산’, ‘동이’ 등의 OST 작곡가 겸 연주가인 플루티스트 송솔나무를 홍보대사로, 바수니스트 김새미와 플루티스트 이하열을 홍보아티스트로 위촉하였습니다. 홍보대사 조혜련은 ‘어디든, 누구를 위해서는 제가 가서 돕는 일이 가능하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라며 힘찬 모습을 보여주었고 홍보대사 송솔나무는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평화를 이끌어내는 귀한 단체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 북녘어린이재활병원건축을 위한 후원의 밤

4월 3일 후원의 밤에서 박수광 이사장은 “이 자리가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세워지는 역사적인 현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며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이 날 행사에는 230여 명이 참석하여 북녘의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뜻 깊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 서울지역 사랑나눔후원모금함 수거

국제푸른나무 모금함이 설치되어 있는 서울 내 여러 지역의 은행, 식당, 서점 등에 들러 수거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마음을 모아 주신 후원자 분들과, 현재 모금 진행에 동참해주고 계신 영업장의 사업주 분들 및 새로 동참해주신 수협 압구정 지점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KT와 MOU 체결

11월 1일 KT와 ‘세계 장애인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식’을 열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KT 지속가능경영단 이선주 단장은 ‘국제푸른나무의 비전이 KT의 비전과 닮은 점이 많다. 앞으로 세계 장애인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겠다.’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국제푸른나무 홍정길 고문은 축사로 “은혜란 값없이 주신 선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 송정미 후원콘서트

11월 18일 The Life 지구촌교회 광고 채플(담임목사 김인환)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아 송정미 후원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많은 성도분들께서 북녘의 장애인과 어린이들의 상황에 공감해 주시는 마음으로 후원약정서를 작성해주셨습니다. 협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interview |

## 개인인터뷰 장슬비 후원자님

첫 번째 인터뷰는 서울에 거주하는 장슬비님과 함께했습니다. 장슬비님은 2014년도부터 꾸준히 국제푸른나무를 통해 복讖의 어린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장슬비님,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필라테스 강사로 일하고 있는 올해 30살이 된 장슬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국제푸른나무를 알게 되신 계기와 어떤 마음으로 후원을 결심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아마도 후원을 2014년도 1월부터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2013년도에 제가 마커스라는 찬양단체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예배를 드렸었는데, 한 주는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다른 찬양단체들과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때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 시작 전에 국제푸른나무에서 후원에 대해 홍보를 하셨었는데, 구직 활동중이었던 저는 그때 당시는 후원에 당장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후원 홍보를 보며 복讖 후원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고, 일자리가 구해진다면 후원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 후 2014년도 1월에 취업을 하게 되어 1월 말에 첫 월급을 받고 정말 작은 돈이지만 주님이 하시는 일에 정말 잘 사용되면 좋겠다는 마음과 복讖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첫 월급을  
 받고  
 정말  
 작은  
 돈이지만  
 주님이  
 하시는 일에  
 정말  
 잘 사용되면  
 좋겠다는  
 마음과  
 복녜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그렇게 후원을 시작하신 것이군요. 후원에 대한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다가 취업 후에 다시 기억해주시다니, 정말 감동입니다. 지금까지 5년 넘게 국제푸른나무와 함께 해 주셨네요. 나눔이란 장술비님께 어떤 의미인가요?

정말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 저의 월급도 올라가면서 중간에 후원금액도 조금은 올렸습니다. 사실 제가 후원하는 금액은 제가 버는 금액에 비해 정말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후원금액을 보면서 ‘이 금액은 내가 밖에서 외식 한번 안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이다!’ 라고 생각하며 후원을 계속 이어 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그 때 후원을 결심하게 됐을 때 주님이 저에게 복녜와 그리고 복녜의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주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기꺼이, 힘들지 않게 후원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후원이란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술비님과 국제푸른나무가 복녜의 아이들에 대해 동일한 마음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네요. 다른 후원자님들도 같은 마음 이실 것 같습니다. 장술비님은 훗날 통일이 되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으세요?

가족들과 같이 자동차로 백두산에 여행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함흥냉면을 사먹고 싶어요! 복녜으로 여행을 가서 아직 많이 훼손되지 않은 자연들을 구경하면서 맛있는 것들 먹고 싶어요!

상상만으로도 정말 들뜨신 것이 느껴지네요! 저도 복녜의 맛있는 음식들과 아름다운 자연이 정말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푸른나무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기에 주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신 곳은 항상 그 이유가 있는 합당한 곳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혼자이지만 나중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제 힘이 다할 때까지 저는 후원을 계속 할 생각이요, 하고 싶어요. 지금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복녜에 대한 더 큰 사랑 변치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인터뷰라는 아주 귀하고 커다란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장술비님의 소중하고 귀한 마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격려해 주신 말씀대로 복녜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지고 활동하는 국제푸른나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후원자 분들의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흔쾌히 인터뷰를 수락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장술비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interview |

KT 사회공헌팀  
김수연 팀장

두 번째 인터뷰는 KT 사회공헌팀의 김수연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KT와 국제푸른나무는 2018년 11월 1일 '세계 장애인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식'을 열고 MOU를 체결하여 협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수연 팀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KT 사회공헌팀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KT의 슬로건 'People, Technology'는 기술 앞에 사람을 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KT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소중히 여기는 기술, 즉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기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KT 사회공헌팀은 'ICT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통신과 융합서비스를 제공,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최고의 국민기업, KT'라는 기업 미션 하에 ICT 기술들을 활용하여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삶의 질을 높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KT와 국제푸른나무는 지난 11월 세계 장애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열고 MOU를 체결했는데요, 어떠한 취지를 가지고 MOU를 체결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KT는 장애인의 복리 증진과 자립·자활을 돕기 위해 IT교육, 스마트팜 운영, 창업 프로그램, 선진수술 지원 및 재활 교실 등 국내외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장애인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푸른나무와 함께 협력하였을 때, 시너지가 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약식 당시 '청각장애 소리찾기 활동'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을 인상 깊게 들었습**

니다. KT 사회공헌팀의 소리찾기 활동에 대한 소개와 이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순간을 듣고 싶습니다.

KT는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기업으로서 청각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선진 기술·의술을 통해 엄마 아빠와 이야기하고 친구들과 소통하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사랑나눔기금을 모으기 시작해 2003년부터 인공와우 수술과 보청기를 지원하면서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소리찾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2012년부터는 연세의료원과 협력하여 난청을 겪는 아동을 위한 언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의 재활프로그램인 ‘KT 꿈품교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캄보디아 역사상 최초로 10명의 아동을 위해 인공와우 수술을 지원하고 ‘캄보디아 꿈품교실’을 개소했습니다.

마음에 남았던 순간은 2018년 1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행한 KT꿈품교실 졸업식입니다. 이제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졸업생이 꿈품교실을 통해 변화된 자신, 가족, 그리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신도 꿈품교실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작년 12월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ICFEPD(장애인을 위한 국제협력 포럼)에 KT 사회공헌팀도 함께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김수연 팀장님께서 연사로 참여하시기도 했는데 포럼 동안에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남북 및 싱가포르·스위스·노르웨이 등 여러 나라의 장애인 정책과 실효를 거두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배우면서, KT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들을 돌아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북측에서 오신 농인협회장과 수어통역사와 대화하면서 북측 장애인의 상황과 손말(수어)·점글자(점자) 체계가 우리와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되어 앞으로 할 일들을 구상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푸른나무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제푸른나무의 세계 장애인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과 열정에 깊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이 번성하여, 수 많은 나라에서 어린 새들이 찾아와 둥지를 틀고 쉼을 누릴 수 있는 국제푸른나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KT 사회공헌팀이 국내외 장애인들의 더욱 풍성한 삶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북녘의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국제푸른나무와 KT가 협력하여 위와 같은 활동들을 펼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성실하게 인터뷰에 응해주신 KT 사회공헌팀 김수연 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SK임업에서 기증한 호두와 천연벌꿀 나눔

충남지부는 SK 임업으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호두와 천연벌꿀을 기증받아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증 받은 호두는 충남지역의 보육원, 장학회, 장애인 복지 단체, 아동센터, 실버대학, 다문화 가정 등에 전달했으며 천연 벌꿀은 3월 24일 예산 고덕에 있는 비비두스 카페에서 열린 ‘감사! 허니 나눔 콘서트’를 통해 판매되었습니다. 콘서트에는 대중가수 여행스케치 리더 루카(조병석), 싱어송라이터 곽은기(은홀), 팝페라 가수 박정소의 공연이 있었으며 모아진 성금은 북녘의 장애인을 위한 보청기와 목발 지원에 사용되었습니다. 물품을 기증해주신 SK 임업에 감사드립니다.

## 사랑의집짓기 자재비 후원

충남예산 예빛봉사단 사랑의집짓기에 동참하고자, 7월 27일 저명한 피아니스트와 함께 아리랑소나타 콘서트를 진행하여 사랑의집짓기 자재비를 후원했습니다.

## 나눔과동행에서 기증한 마스크팩 나눔

2019년 1월 29일 ‘연예인기부천사 나눔과동행’ (대표 김형일)으로부터 5,760만 원 상당의 마스크 팩을 기증받아 당진, 예산 내에 있는 미혼모·한부모·다문화가정 여성들과 요양원에 나누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즐겁고 행복한 나눔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나눔과동행에 감사드립니다.

##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피아노 기증

8월~12월 동안 피아노 총 4대를 기증받아 마다가스카르 타마타브 지역의 학교로 보냈습니다. 피아노는 2019년 3월 중순쯤 도착할 예정입니다. 건반 악기가 하나도 없었던 타마타브 지역 학교에서도 곧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지길 기대합니다. 아이들은 벌써부터 피아노 이론을 배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과 사진은 특집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지역본부소식

## 충남지부



## 국내지역본부소식 경산지부



## 경산청소년아침무료급식센터 활동

경산지부는 아침밥을 먹지 못하고 등교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2010년 9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침 무료 급식 센터를 오픈했습니다. 경산청소년아침무료급식센터는 한부모 가정 · 맞벌이 가정의 청소년 친구들도 따뜻한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매주 수요일 도시락을 집으로 직접 배달합니다. 따뜻한 밥 배달을 위해서 화요일에는 지역 여성봉사단체 회원 분들이 모여 식자재를 다듬고 수요일에는 새벽 4시부터 시청 직원 · 복지관장 · 대학 교수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모여 분주히 도시락을 준비합니다. 경산청소년아침무료급식센터는 매주 140여명의 청소년들뿐 아니라 센터로 직접 찾아오는 어르신들에게도 아침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 주마다 아침 일찍 피곤하신편 맛있는 도시락 가져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구벽)."  
-○○중학교 3학년

"도시락 늘 감사한 마음으로 잘 먹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 새해에는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엄마 올림

## 경산청소년힐링센터 활동

경산청소년힐링센터는 학교 생활에 적응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한 청소년 전용 공간입니다. 센터를 통해 청소년 친구들은 정기 봉사활동과 벽화 작업, 해외봉사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산청소년힐링센터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여 친구들이 공부 외에도 자신이 재능이 있는 분야를 발견하고 청소년기를 더 즐겁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집기사

# 마다가스카르에 울리는 피아노 소리

글\_편집부

2019년 2월 20일 부산항, 피아노 네 대와 악보 122권을 실은 컨테이너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를 향해 출발했다. 국제푸른나무 충남지부가 지난 8~12월 동안 기증 받아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다. 피아노는 3월 24일 마다가스카르에 도착하여 네 개의 학교로 보내질 예정이다.

피아노를 보내기 위해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하모니를 이루었다. 피아노 세 대는 개인이 각각 기증한 중고 업라이트 피아노, 한 대는 충남지부의 한 회원이 새 것으로 구매하여 기증한 디지털 피아노다. 어떤 이는 피아노 운반비를 후원해주었다. 분당올림피아 피아노 악기사의 최우규 대표(국제푸른나무 홍보대사 전

용대 목사 전속 반주자)는 피아노 청소·조율 및 컨테이너 선적을 위한 모든 준비작업을 도맡아 했다.







곧 피아노가 도착한다는 소식이 마다가스카르에도 전해졌다. 타마타브 지역 베다니학교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벌써부터 음악 공부를 시작했다. 충남지부는 마다가스카르의 더 많은 아이들이 음악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피아노를 계속해서 기증받고 있다.



충남지부 권지는 국장은 마다가스카르 학교 교실과 채플실에 건반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어린 시절 형편이 어려워 교회에서 홀로 피

아노를 연습했던 기억이 떠올랐다고 한다. 권 국장은 마다가스카르 학교에 피아노가 한 대만 있어도 그 피아노를 통해 어떤 아이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음악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곧 마다가스카르에 울리게 될 아름다운 피아노 선물을 통해 아이들이 새로운 꿈을 펼치고 삶이 더욱 활짝 피어나기를 기대한다.



## Madagascar

# 푸른나무 아프리카 리더십 이야기



### 벤엘 중학교 건립

2018년도 벤엘 초등학교 졸업생들을 위해 학교 옆에 벤엘 중학교를 지었습니다. 현재 3개 학년으로 운영되고 48명의 학생들이 학업 중에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모든 아이들이 교육의 기회를 얻는 그날까지 학교 짓기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무룬다바 중학교 건립

갈 곳이 없는 무룬다바 초등학교의 졸업생들을 위해 중학교 건립 공사를 시작하여 2018년 9월에 무룬다바 중학교를 건립했습니다. 현재 2개 학년으로 33명의 학생들이 학업 중에 있습니다. 후원이 이어져 이 아이들을 위한 고등학교도, 나아가 대학교도 지어지기를 희망합니다.



### 팜페라가수 박정소 홍보대사 위촉식

2018년 11월 13일 푸른나무 아프리카리더십 홍보대사로 팜페라가수 박정소가 위촉되었습니다. CCM 그룹 ‘노래하는 어부들’ 김성조 목사의 축하 찬양이 있었습니다. 활동협약서에 사인을 하고 본격적으로 박정소 팜페라가수의 미니 콘서트가 진행되어 참석한 모든 분들의 귀와 마음을 행복하게 하였습니다. 박정소 팜페라가수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함께 앞으로 국제푸른나무와 푸른나무 아프리카리더십이 더욱 푸르른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Nepal

# 네팔 그린트리 패션스쿨 이야기

글\_김선태 조상미

안녕하십니까? 네팔 그린트리 패션 스쿨의 김선태, 조상미 활동가입니다.

현재 국제푸른나무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숙사에는 27시간 걸리는 수루켈 지역에서 온 청년 찐티와 5시간정도 걸리는 치트완에서 온 청소년 번더나, 수지파, 또 고다바리에서 온 청년 미나가 머물고 있습니다. 기숙사 내에서도 훈련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미싱 등을 준비해 놓고 있어 휴일이나 하교 후에 기숙사에서 연습을 합니다. 이런 좋은 장소를 마련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국제푸른나무 후원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2018년 1월에 11명의 청년들과 수업을 시작하였고, 9명의 청년이 정기 커리큘럼을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는 2019년 3월 29일로 예정하고 있는 졸업작품 패션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아이들의 눈빛이 바뀌고, 태도도 바

뀌었음을 느낍니다. 패션디자이너로서의 꿈은 남의 이야기인줄 알았는데, 이제 그 꿈이 보이고 그 꿈에 한 발짝 앞으로 나간 것 같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미 졸업작품 패션쇼 장소와 모델섭외를 마쳤고, 청년들과 함께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에 패션쇼를 마치면 저희 청년 중 한명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매장을 열 계획을 가지고 있어 저희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청년들은 디자이너로서의 자질을 더 키우기 위해 좀 더 심화된 훈련을 할 계획이며, 신입생도 함께 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팔 그린트리 패션스쿨을 통해서 네팔에서도 한국의 앙드레 김처럼 훌륭한 패션디자이너를 양성하고 배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  
후원

고정하	김경상	김미현	김아영	김수정	김은숙	김지혜	남지현	박광희	박정운	서정숙	신보라	양현중	유정현	이규일	이순복
고현정	김경숙	김미희	김안나	김수진	김은실	김지호	남화정	박난영	박정현	서정현	신선여	엄경임	유정곤	이남주	이순애
고희범	김경애	김민구	김양미	김수진	김은아	김지호	남화정	박다하	박정환	서정훈	신성규	엄은숙	유태원	이다정	이승목
가병관	김경호	김민성	김양중	김순호	김은영	김진희	노민영	박대현	박종도	서지운	신소림	엄혜정	유화예	이다함	이승섭
강귀련	김경희	김민정	김자숙	김승옥	김은정	김진이	노영식	박동수	박종미	석낙신	신용원	여상기	유희덕	이덕기	이승철
강기석	김관우	김민혁	김자영	김신규	김은희	김진주	노영신	박동훈	박주미	석명봉	신우재	여세은	윤명희	이덕수	이승현
강명기	김규명	김민음	김정서	김신혜	김인성	김찬호	노춘미	박리라	박주한	성기창	신윤희	여임숙	윤미란	이도균	이시은
강명진	김이삭	김민숙	김재식	김아름	김인숙	김창근	노태성	박만중	박주희	성승환	신일선	염규완	윤병숙	이동길	이시형
강미아	김수용	김병현	김재현	김이영	김민희	김창근	노현민	박만호	박주희	성하준	신재필	염창호	윤소영	이동선	이신희
강복원	김희석	김민성	김자영	김이영	김민희	김창근	노현민	박미경	박주희	성하준	신재필	염창호	윤소영	이동선	이신희
강성호	김기영	김보아	김재현	김이영	김민희	김창근	노현민	박미경	박주희	성하준	신재필	염창호	윤소영	이동선	이신희
강수정	김기영	김보아	김재현	김이영	김민희	김창근	노현민	박미경	박주희	성하준	신재필	염창호	윤소영	이동선	이신희
강승범	김기영	김보아	김재현	김이영	김민희	김창근	노현민	박미경	박주희	성하준	신재필	염창호	윤소영	이동선	이신희
강양원	김기영	김보아	김재현	김이영	김민희	김창근	노현민	박미경	박주희	성하준	신재필	염창호	윤소영	이동선	이신희
강연수	김기영	김보아	김재현	김이영	김민희	김창근	노현민	박미경	박주희	성하준	신재필	염창호	윤소영	이동선	이신희
강영은	김기영	김보아	김재현	김이영	김민희	김창근	노현민	박미경	박주희	성하준	신재필	염창호	윤소영	이동선	이신희
강영자	김기영	김보아	김재현	김이영	김민희	김창근	노현민	박미경	박주희	성하준	신재필	염창호	윤소영	이동선	이신희
강용규	김기영	김보아	김재현	김이영	김민희	김창근	노현민	박미경	박주희	성하준	신재필	염창호	윤소영	이동선	이신희
강유진	김기영	김보아	김재현	김이영	김민희	김창근	노현민	박미경	박주희	성하준	신재필	염창호	윤소영	이동선	이신희
강은현	김기영	김보아	김재현	김이영	김민희	김창근	노현민	박미경	박주희	성하준	신재필	염창호	윤소영	이동선	이신희
강인표	김기영	김보아	김재현	김이영	김민희	김창근	노현민	박미경	박주희	성하준	신재필	염창호	윤소영	이동선	이신희
강정수	김기영	김보아	김재현	김이영	김민희	김창근	노현민	박미경	박주희	성하준	신재필	염창호	윤소영	이동선	이신희
강지영	김기영	김보아	김재현	김이영	김민희	김창근	노현민	박미경	박주희	성하준	신재필	염창호	윤소영	이동선	이신희
강지윤	김기영	김보아	김재현	김이영	김민희	김창근	노현민	박미경	박주희	성하준	신재필	염창호	윤소영	이동선	이신희
강지혜	김기영	김보아	김재현	김이영	김민희	김창근	노현민	박미경	박주희	성하준	신재필	염창호	윤소영	이동선	이신희
강진욱	김기영	김보아	김재현	김이영	김민희	김창근	노현민	박미경	박주희	성하준	신재필	염창호	윤소영	이동선	이신희
강진주	김기영	김보아	김재현	김이영	김민희	김창근	노현민	박미경	박주희	성하준	신재필	염창호	윤소영	이동선	이신희
강초록	김기영	김보아	김재현	김이영	김민희	김창근	노현민	박미경	박주희	성하준	신재필	염창호	윤소영	이동선	이신희
강형덕	김기영	김보아	김재현	김이영	김민희	김창근	노현민	박미경	박주희	성하준	신재필	염창호	윤소영	이동선	이신희
강희룡	김기영	김보아	김재현	김이영	김민희	김창근	노현민	박미경	박주희	성하준	신재필	염창호	윤소영	이동선	이신희
강희선	김기영	김보아	김재현	김이영	김민희	김창근	노현민	박미경	박주희	성하준	신재필	염창호	윤소영	이동선	이신희
계나영	김기영	김보아	김재현	김이영	김민희	김창근	노현민	박미경	박주희	성하준	신재필	염창호	윤소영	이동선	이신희
고나영	김기영	김보아	김재현	김이영	김민희	김창근	노현민	박미경	박주희	성하준	신재필	염창호	윤소영	이동선	이신희
고동주	김기영	김보아	김재현	김이영	김민희	김창근	노현민	박미경	박주희	성하준	신재필	염창호	윤소영	이동선	이신희
고미경	김기영	김보아	김재현	김이영	김민희	김창근	노현민	박미경	박주희	성하준	신재필	염창호	윤소영	이동선	이신희
고성근	김기영	김보아	김재현	김이영	김민희	김창근	노현민	박미경	박주희	성하준	신재필	염창호	윤소영	이동선	이신희
고수남	김기영	김보아	김재현	김이영	김민희	김창근	노현민	박미경	박주희	성하준	신재필	염창호	윤소영	이동선	이신희
고아라	김기영	김보아	김재현	김이영	김민희	김창근	노현민	박미경	박주희	성하준	신재필	염창호	윤소영	이동선	이신희
고영빈	김기영	김보아	김재현	김이영	김민희	김창근	노현민	박미경	박주희	성하준	신재필	염창호	윤소영	이동선	이신희
고영하	김기영	김보아	김재현	김이영	김민희	김창근	노현민	박미경	박주희	성하준	신재필	염창호	윤소영	이동선	이신희
고영진	김기영	김보아	김재현	김이영	김민희	김창근	노현민	박미경	박주희	성하준	신재필	염창호	윤소영	이동선	이신희
고이순	김기영	김보아	김재현	김이영	김민희	김창근	노현민	박미경	박주희	성하준	신재필	염창호	윤소영	이동선	이신희

이재준	이현옥	장속영	정다운	조복남	천관욱	최현아	허혜수
이재현	이현정	장슬비	정명화	조선희	천혜미	최혜옥	현은성
이정권	이현정	장영호	정모숙	조성대	최경예	최혜진	형남식
이정림	이현진	장예라	정문자	조성래	최경일	최호진	호선옥
이정아	이형은	장우윤	정미경	조수경	최금화	최희경	홍경자
이정애	이혜경	장유식	정미옥	조숙화	최다은	최희선	홍광현
이정옥	이혜경	장유진	정미자	조승희	최닷음	추명선	홍미봉
이정은	이혜숙	장은기	정방환	조아름	최도영	추수미	홍상호
이정인	이혜인	장은실	정병순	조아영	최미란	추수진	홍성숙
이종구	이혜인	장은옥	정병웅	조영숙	최법석	추진성	홍성호
이종수	이혜자	장은진	정상호	조영완	최법섭		홍승균
이종순	이호	장은희	정선남	조영진	최병은	E	홍영실
이종예	이호건	장은희	정선용	조은영	최보영		홍정근
이주나	이호숙	장주영	정성희	조위현	최복순	탁윤조	홍정영
이주란	이호정	장세영	정성영	조윤희	최복화	태승원	홍지영
이주리	이호정	장주원	정수진	정노영	최서정		홍지은
이주성	이화선	장주하	정수진	조은비	최선영	ㅎ	홍청희
이주희	이효석	장진석	정수현	조재숙	최성덕		홍현미
이준혁	이후남	장진영	정예원	조정화	최성민	하상빈	황명란
이준호	이희경	장진희	정용근	조준호	최성수	하세례	황미리
이중원	임경아	장태훈	정원형	조차성	최성은	하연정	황성열
이지선	임다운	장한나	정윤선	조천일	최세나	하영빈	황수민
이지영	임명오	장현봉	정은주	조학래	최세진	하유진	황수진
이지원	임서연	장혜경	정은하	조현건	최소영	하은경	황윤정
이지은	임성주	장혜련	정의석	조현진	최수연	한규현	황은산
이지혜	임영림	장혜진	정인선	조혜숙	최수영	한기봉	황은영
이지혜	임예진	장호준	정인선	조혜옥	최수정	한기숙	황은혜
이진	임용숙	장훈	정재석	조혜정	최순미	한명숙	황인숙
이진경	임유라	전기천	정재천	조혜진	최순희	한명환	황인영
이진나	임은수	전덕권	정주안	조희주	최아름	한미숙	황정희
이진로	임은희	전동민	정지훈	주미경	최양희	한빛	황지혜
이진수	임자현	전미연	정주희	주은주	최영숙	한선영	Ro Sean Kim
이진영	임종화	전미현	정지선	주정숙	최유빈	한수정	SU YANAN
이진우	임지훈	전소현	정지영	지은파	최윤주	한숙자	
이찬희	임지희	전수미	정지현	지인희	최윤지	한아영	
이창록	임창민	전영재	정진구	지한비	최은성	한장현	
이창수	임필선	전우정	정현옥	진수정	최재경	한종훈	
이철호	임현섭	전우진	정현정	진정태	최재민	한주애	
이춘우	임형빈	전유진	정현주	진찬민	최정임	한지은	
이충원	임희정	전은주	정현철	진현주	최정하	한진성	
이태석		전재덕	정혜은		최정희	한현진	
이포근	ㅈ	전재빈	정혜인	ㅈ	최주백	한혜영	
이필선		전지아	정혜진		최준	함실	
이학립	장덕미	전환수	정효선	차가람	최준원	함태식	
이해성	장미리	장가원	정휘진	차인경	최지영	해피빈	
이해숙	장미희	장경민	정희경	최혜자	최지예	허수영	
이해주	장보름	장경순	정희재	채민지	최지윤	허영미	
이향화	장보현	정고운	정희정	채빛나	최지이	허주희	
이현구	장부교	정공주	제현수	채석민	최진영	허준영	
이현미	장성주	정귀용	조경순	채송아	최충실	허지옥	
이현미	장세훈	정기영	조경화	채유순	최한나	허태희	
이현숙	장수유	정기옥	조광국	채정아	최향기	허한나	

## 기업 후원

개봉교회5권사회  
거룩한빛맑은샘광천교회  
광염드림교회  
국민은행 강남대로점  
국민은행 이촌지점  
김경환  
꿈꾸는어린이집  
꿈이있는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노블키즈어린이집  
대구새누리교회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대아틀  
대추발한의원  
더나은구조엔지니어링  
더라이프지구촌교회  
더리스  
동강  
동산교회  
메디쿼터스  
문경당포교회  
밀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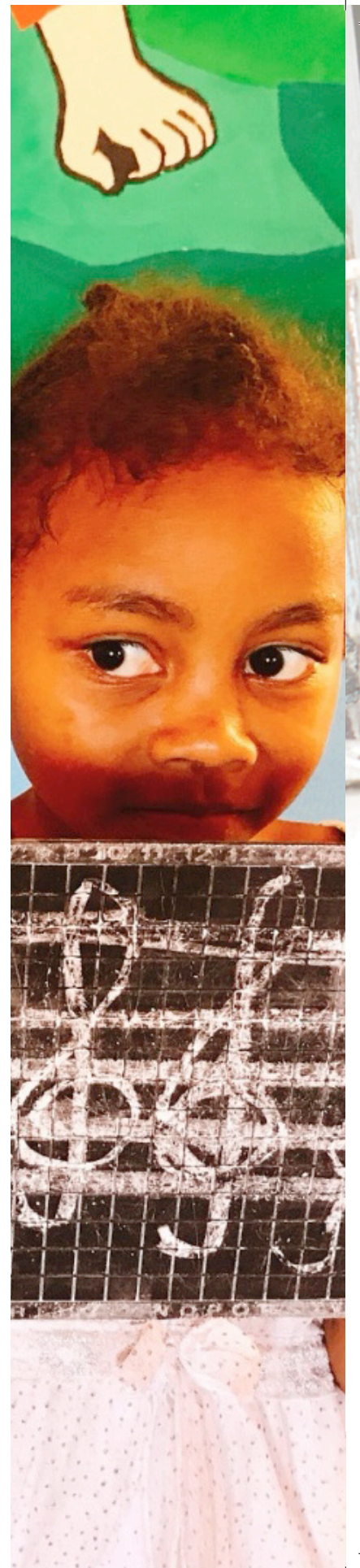
사단법인 기운차림봉사단  
상하이(상해)한인연합교회  
새빛중앙교회 선교부  
서울영동교회  
선한목자교회  
세교물산  
송인교회  
스타트레인  
신광교회  
씨엘엠스타일(CLM style corp.)  
아름다운비행  
아프리카리더십 지역본부  
안양석수교회  
어린이어깨동무  
어썸브랜드  
에스케이임업 주식회사  
에이엠에스  
예사랑아동병원  
예수전도단  
예전침례교회(여선교회)  
월드비전

월시스  
은진교회  
일백복지재단  
정상득이비인후과  
제일철강  
주님의교회  
주안장로교회  
참소망연합의원  
창동어린이집  
찾아가는교회  
천지인터넷서넬터  
케이티  
코기코기  
평화3000  
포도나무교회  
푸른나무교회  
하기  
하늘유통(충산대구내서점)  
한국기독교 100주년기념교회  
한국사랑나눔공동체  
홍콩한인교회  
KPC PTZ CTD (나눔과섬김의  
교회, 싱가포르)



# 나눔참여안내

홈페이지	<p>국제푸른나무 홈페이지  <a href="http://www.greentreekorea.org">www.greentreekorea.org</a>                      [후원참여 &gt; 정기후원, 일시후원, 기업 및 단체후원, 물품후원, 자원봉사참여] 중 후원 종류를 선택하여 후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p>
전화	<p>국제푸른나무 사무실 02.3482-2000 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p>
무통장 입금	<p>국제푸른나무 계좌로 후원금을 직접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국민 76737-04-007453 사단법인 국제푸른나무                      (기부자 확인 및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희망하시는 경우 국제푸른나무 사무실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p>
종이 저금통	<p>종이저금통을 요청하시면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개당 1,000원)</p>
카카오 같이가치 & 네이버 해피빈	<p>카카오 같이가치와 네이버 해피빈에서 국제푸른나무를 검색하셔서 진행 중인 모금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해피빈 롱 1개, 그리고 같이가치 댓글 1개로 100원이 기부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희망합니다.</p>





후원자님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응원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지런히 사명을 감당해나가는  
국제푸른나무가 되겠습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We share the love of God with the disabled and children in North.  
북녘의 장애인들과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함께 나눕니다.



국제푸른나무

04422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223-13 농업기술진흥관 303호 국제푸른나무  
Tel. 02-3482-2000 | Fax. 02-797-2015  
desk@greentreekorea.org | www.greentreekorea.org